

지역 매 아리

삼례·봉동 주민 안전 확보

김제시보건소,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지원사업 확대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난임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하여 동 사업을 7월 1일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 소득이 180%이하의 가정이었지만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동일하지만, 연령제한(만45세 이상 포함)을 폐지했다.

지원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률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서 만 45세 이상자는 체외수정 기준 신선배아 4회(확대 7회), 동결배아 3회(확대 5회), 인공수정 3회(확대 5회)씩 총 17회(1회당 40만원 지원)까지 지원된다.

만 44세 이하 신청자 중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 포함해 10회차까지는 최대 1회당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추가 7회(신선3회,동결 및 인공수정 2회)분에 대하여는 1회당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부부지원기관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삼례나들목로·지방도 799호선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차량 최고속도 60km/h로 제한... 미끄럼방지, 안전펜스 등 설치

완주군이 통행량이 많은 삼례, 봉동 지역을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완주군은 삼례나들목로(하리교~신금교), 봉동을 지방도 799호선(삼봉로, 완주군~서두삼거리) 구간에 대한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정과 함께 관련 안전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현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군

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완주군이 지정하고 있는 삼례나들목로는 인근에 4개 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최근 하리교가 확장(2차선 → 4차선)되면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곳이다.

봉동을 지방도 799호선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에 봉동초, 완주고등학교가 있어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이다.

군은 이들 도로를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의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도로에 미끄럼방지, 중앙분리대 설치와 더불어 보도 조성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나들목과 지방도 799호선은 주민 통행량이 많고,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으뜸안전 완주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봉동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완주군,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

2021년까지 총사업비 89억원(국비 30억원·지방비 59억원) 투입

완주군 봉동읍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완주군은 장애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을 민선2기, 7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난 2016년부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타당성 용역, 군계획시설 결정, 장애인 협회 의견 수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89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59억원)이 투입돼 봉동읍 낙령리 생강골공원 인근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00㎡ 규모로 건립

되게 된다.

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운동처방실, 운동 프로그램실이 들어설 예정으로 실시단계 단계에서 장애인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완주군에 처음 건립되는 만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체육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는 운영하는 타바타&기구근력 운동

타바타 운동... 김제시보건소, 비만교실 종료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위험요인 중 하나인 비만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비만운동교실(타바타&기구근력 운동)을 운영하여 3월 19일을 시작으로 6월 27일로 마무리했다.

타바타 운동이란, 일명 하루의 4분의 기적이라고 한다.

한 동작 당 바른 자세로 빠르게 '고강도 운동 20초, 10초 휴식'이 기본 룰이며 이 동작을 8번 반복 운동한다.

타바타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 강

도가 높아 운동이 끝난 후에도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돼 칼로리 소모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번 비만교실 참석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시작 전·후 개인별 체성분 검사와 혈액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올바른 운동 및 식습관에 대한 영양상담 등 맞춤형 비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상반기 타바타&기구근력운동 결과 체지방률 감소, 혈압감소, 혈당감소, 특히 배근력향상에 크게 효과가 나타났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 21회김제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이' 모집

김제시, 온라인 홍보대사 20명, 12일까지 접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뛰는 제 21회 김제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SNS 서포터즈'지평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축제를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로, 선발인원은 20명이며 오는 7월 12일까지 모집 후, 7월 중순경 확정된다.

지평이로 선발되면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축제 종료시까지 SNS를 통하여 지평선 축제를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축제 종료후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 인정과 함께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평소 SNS를 즐기며 지평선축제에 대하여 관심한 이이다어와 다양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남녀노

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평선축제홈페이지(<http://festival.gimje.go.kr>)와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gimjehorizon>)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ssh12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양운영 문화홍보축제실장은 "SNS가 범사회적 소통방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소수정예로 구성된 SNS 홍보단을 통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지평이를 통해 참신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축제 사전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기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연속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로 21회를 맞아 기존 축제의 틀을 벗어나 20, 30대 젊은층의 흥미와 트렌드를 반영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전환,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경천면 죽림소하천 정비완료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2015년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한 죽림소하천 정비사업을 작금 5년 만에 완료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죽림소하천은 경천면 죽림마을을 관류하는 소하천으로 협소한 통수 단면으로 유속이 빨라 강마찰에 제방유실 등의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소하천 1.3km 구간에 축제를 구축하고, 호안정비와 함께 교량 6개소를 건설했다.

이동열 완주군 재난안전과장은 "죽림소하천 정비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다"며 "재해예방은 물론 마을 환경까지 정비한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된 만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60개 버스 승강장 내 건강 정보 제공 홍보용 부채 비치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7월부터 폭염이 마무리되는 9월까지 60개 버스승강장내에 홍보용 부채를 서너개씩 비치하여 승강장 이용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폭염에 대비하게 할 계획이다.

홍보용 부채는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담고 있어 폭염 대비는 물론 건강정보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비치하게 되는 버스승강장은 2015년 공모사업 선정안으로 신규 설치된 지역으로 홍보용 부채를 비치해 두면 탑승 대기 주민들이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보



김제시 보건소는 폭염이 마무리되는 9월까지 홍보용 부채를 서너개씩 비치하여 폭염에 대비할 계획이다.

다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홍보용 부채가 손상되거나 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정기적 방문을 통해 회수하거나 교체하면서 주민들의 이용 불편감을 없애 서비스 만족감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